

Exploratorium 03

VINCENT + FERIA

진화적인 멀티미디어 장비, 학습을 위한 공간, 반성/과 상호작용.

이 작업은 정신적이고 개념적인 공간과 같이 제작 되었습니다. 이 공간은 지구상의 “우리 모두”에 관한 속고로 이어질 것 입니다. 우리는 통합하고, 경험하고, 참여하고, 웨델해 the Weddell sea 와 북극에서의 우리들의 항해에서 시작한 환경에 관한 질문을 제기를 목적으로 “지금 당장 Here and now”라는 문구에 기반한 논점에 접근할 것 입니다.

어떤 영토가, 어떤 새로운 영토들이, 어떻게 그들과 협상을 하는가?, 국제적 협약에 의해 통치되는 6번째 대륙인 “다국적 국가”가 앞으로 대체되는 시스템이 될 것인가? 현대사회는 국경이 부재한 상황에서 좀더 인간적인 공간을 위해 국가라는 개념 State Nations을 대체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? 예술, 교환, 담론, 모임,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통한 연결이 현재 우리의 삶을 위한 변화의 중심축이 될 것인가?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“새로운 역할”을 담당한 예술가들이 사회적인 동원에 참여할 것인가?

첫번째 단계는 “연결 CONNECXIONS”입니다. 광주비엔날레 2008 첫 날 Exploratorium 0.3에서 전 세계의 예술가, 과학자, 정치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들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소통을 시도할 것입니다.

EXPLORATORIUM 0.3의 두 번째 단계는 “초대 INVITATION”로 광주비엔날레의 초청이 예술가들에게만 이루어진 것 인것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예술가들과 일반인들을 오프닝 리셉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.

세 번째 단계는 “WORKSHOP” 입니다. “워크숍”에서는 한국의 젊은 10명 작가들과 함께 앞서 설명한 기회를 함께 경험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.

마지막으로 4번째 단계는 “포스트 프로덕션 POST-PRODUCTION” 입니다. “포스트 프로덕션”은 웹사이트와 DV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웹사이트는 조만간 접속이 가능할 것이며, DVD는 Exploratorium 0.3에서 제안된 다양한 행동들을 광주비엔날레 행사 기간 동안 연상을 위한 목적으로 편집된 내용들이 담겨질 것 입니다.

요리를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인 “SHRIMPS’ BENCH”는 동물성프랑크톤인 크릴 새우를 위한 오마주를 목적으로 합니다. 크릴 새우는 바다의 극지 부근에서 먹이사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, 이 지역의 해양에서 서식하는 고래류와 펭귄들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.

Exploratorium 0.3의 출구에는 ‘친구’로 되어있는 흰색의 레온사인이 전시됩니다.

Exploratorium 0.3

VINCENT + FERIA

워크숍 <<공동 시간>>

아티스트 그룹 빈센트+페리아는 이번 제7회 광주비엔날레에서 Exploratorium 0.3라는 발전장치를 설치 및 전시하여, 남극과 북극을 서두로 하는 환경문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

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 집니다.

- 워크숍
- 인터넷을 통한 각 나라의 작가, 연구자, 탐험가들과 연결
- 워크숍 당일 초빙 현장 초대
- 포스트 프로덕션은 비엔날레 기간 동안 설치작품을 통해 상영

각기 다른 과정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‘지금 이 순간’, ‘바로 여기’ 그리고 타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.

워크숍

저희들은 광주에서 5일간 이 <<공동 시간>>을 함께 나눌 작가들과 연구자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.

첫 째날: 8월말 예정

둘 째날: 9월 1일 월요일 오후2-5시

셋 째날: 9월 2일 화요일 오후 2-5시

워크숍은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며, 비엔날레 전시장안의 exploratorium 03 공간과도 연계되어 진행될 것입니다.

3일간의 워크숍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<<사적인 시간>>과 <<함께 나누는 시간>>을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.

즉, 작품을 체험해보고, 개개인과 참여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.

작품 제작과 리셉션 사이에서의 작품과 발전 그리고 진행과정이 될 것입니다.

우리의 시각시선을 돌려, 각자의 인식과 지식에 비추어 도시의 복합성과 도시공간 그리고 현 환경문제에 대한 응답을 고찰하고자 합니다.

극지(북극, 남극)와 이 양극의 땅과 우리의 현실적 그리고/혹은 상상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, 더 나아가 매일 다양한 출판물과 미디어로부터 얻는 이미지들을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각자의 주관성을 살찌우고, 현 상회와 환경문제들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

신청기간

2008년 8월 1일까지 exploratorium03@gmail.com으로

- 참가자의 연락처, 성명, 거주지, 이메일주소, 개인 웹사이트와 작업과 연구를 5정도로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.

워크숍 참석자 전원은 V+F로부터 확인 메일과 이어질 모임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시게 됩니다.

참여조건

워크숍 전기간 동안 참석해야 합니다.

디지털 비디오 카메라, 디지털 사진 카메라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선택준비사항: 디지털 저장 녹음기mp3, 노트북

숙식은 참가자들이 해결해야 합니다.

워크숍 신청은 무료이며,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.

워크숍 기간 동안 촬영된 이미지와 사운드는 광주비엔날레의 exploratorium 03 에서 2008년 11월 9일까지 전시될 것입니다.

이 이미지와 소리의 자유로운 사용 권리가 V+F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.

Copyleft_Antarctic

Vincent+Feria

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비엔날레행사를 위함

<<천개의 이미지 사이에서>>

<http://www.flickr.com/photos/36855232@N00>

남위 55° (아르헨티나의 Ushuaia)와 남위77° (아르헨티나의 Belgrano) 그리고 서경 64° 와 서경34° 평행선 사이에서 찍은 웨들해와 남극의 이미지

2004년 2월 Argau VI의 캠페인 기간 동안 Amirante Irizar호의 선박 끝에서 촬영

총 3000개의 이미지가 캠페인 기간 동안 촬영

우리들은 이 이미지들 중 1000장의 이미지를 카피레프트로 지정(단, 원본은 작가소유)

창조적인 이미지 제작을 위해 완벽한 공간에 배치

당신은 이 이미지들은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.

카피레프트로 지정된 천개의 이미지들은 www.flickr.com/photos에서

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아래의 명시된 기간 동안 주소로 이 이미지들을 이용해 재창조된

당신만의 이미지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.

- 기간: 2008년 6-8월
- 수취인: Vincent + Feria
- 주소: 85 rued dePyrenees 75020, Pris, France
- 이메일: vincentferia@gmail.com

- 기간: 2008년 9 - 11월
- 수취인: Vincent + Feria
- 주소: Gwangju Biennale san 149-2 Yongbong-dong Buk-gu 500-070 Gwangju, South korea
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500-070 광주비엔날레 재단 전시팀